

오정희 단편소설의 회상매개 연구

이 지 혜*, 김 중 회**

요 약

본고의 목적은 오정희의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오정희의 '전쟁 체험'이 어떠한 '회상매개'로서 그의 소설세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궤적을 논의하려는 것에 있다. 오정희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치밀하게 고찰해 낸 작가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오정희의 초기 단편에 드러나는 회상매개는 전쟁 상황에 놓여있거나 전쟁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특정한 기억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 성장과 더불어 그 기억을 매개체를 통해 되살리고자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우선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년의 뜰』을 통해 전쟁의 혼돈으로 빚어진 가족의 부재와 상실이 회상매개로 재현되는 과정의 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현이 불가능한 전쟁의 고통이 어떻게 개인의 기억을 통해 회상매개로서 재건되는지 『중국어 거리』를 통해 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겨울 뜰부기』를 통해 무의식 속에서 부표처럼 부유하는 회상매개의 양상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오정희는 '유년기 전쟁체험 세대' 작가 중 거의 유일무이한 여성작가로 꼽을 수 있다. 이렇듯 오정희의 전쟁 체험은 전쟁의 이면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여성 수난의 회상매개이자 서사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정희의 소설로 억압되어 왔던 개별적이며 역사적인 기억의 회상매개를 탐구함으로써, 전쟁의 현실을 새롭게 조망하고 개별 기억의 인정과 극복으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주저자

** 경희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주제어: 오정희, 회상매개, 전쟁, 기억, 회상, 매개

목차

1. 서론
2. 회상매개의 대립: 『유년의 뜰』
3. 회상매개의 이중양상: 『중국인 거리』
4. 회상매개로서의 기억과 무의식: 『겨울 뜰부기』
5. 결론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역사적, 정신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기억은 오정희의 초기소설에서 문화론적 세계관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은 회상이나 단순한 메모리로서의 역할 외에도 기억과 역사, 기억과 상처, 송덕 등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그 궤를 같이 한다.

오정희 소설에 나타나는 회상매개는 자기 해체를 통해 나타나는 단순 경험 기억의 '재생'을 위한 모티브가 아니라 기억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억을 단순기억이 아닌 경험기억에서 비롯된 문화기억으로 승화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본 글에서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기억과 회상의 모습을 논의하여 그 매개를 확인하고자 함은, 작가가 근 시대의 개인(집단) 기억 또는 문화(공식) 기억에 의해 억압된 기억의 정체성을 작품 속에서 개인적 삶으로 재건하려 한다는 것이다.

오정희는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부에 『완구점 여인

』를 발표하며 문단에 나왔다. 이후 작품 전반¹⁾에 드러나는 생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과 비애는 오정희 특유의 미학적 형상화를 통해 공고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인정²⁾을 받고 있다. 오정희 소설 연구³⁾는 크게 ‘의식과 서사구조’⁴⁾, ‘정신 분석 및 여성주의’⁵⁾의 범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오정희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적지 않으나 그간의 연구는 주로 ‘전쟁’이라는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죽음’ 혹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의 심리주의적 관점이나 ‘서사구조의 분석’의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 1) 오정희는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완구점 여인』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직후 1970년 『월간중앙』에 『주자』(1969)와 『산조』(1970)를 발표했으며, 『월간문학』에 『적녀』(1970)를 발표했다. 이후 단편집 『불의 강』(문학과지성사, 1977), 『유년의 뜰』(문학과지성사, 1980)을 출간했으며 『저녁의 게임』으로 제3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 2) 김 현, 『살의 섬뜩한 아름다움』,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1977.
권영민, 『동시대인들의 꿈 혹은 고통』,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82, 12.
김종희, 『중국인 거리 - 성장기 소녀의 동경과 환멸』, 『대표소설 100선 연구』 2권, 문학수첩, 2006.
우찬제,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 3) 김 현, 『요나콤플렉스의 한 증상』, 《월간문학》, 1969.
권영민, 『동시대인들의 꿈 혹은 고통』,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82.
권오룡, 『원체험과 변형의식』, 『존재의 변명』, 문학과지성사, 1989.
성현자, 『오정희 『별사』에 나타난 시간구조』, 『개선어문논집』, 1986.
황도경, 『빛과 어둠의 문체』, 『문학사상』, 1991, 1.
——, 『『유년의 뜰』의 회상 형식 및 문체』, 『이화어문논집』, 1992, 3.
——, 『불을 안고 강 건너기』, 『문학과사회』, 1992, 5.
임금복, 『한국적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초상』, 『비평문학』, 1993.
차미령, 『원초적 환상의 무대화』, 『한국학보』, 2005.
지주현, 『오정희 소설의 트라우마와 치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5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 4) 임영민, 『동시대인들의 꿈 혹은 고통』, 『문학사상』, 1982, 12.
권오룡, 『원체험과 변형의식』, 『존재의 변명』, 문학과지성사, 1989.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녀』, 문학과지성사, 1986.
이남호, 『휴화산의 내부』, 『문학의 위족』, 민음사, 1990.
- 5) 김경수, 『여성성장소설의 제의적 국면』, 『현대소설의 유형』, 솔, 1997.
황도경, 『뒤틀린 성, 부서진 육체』, 『작가세계』, 1995, 여름.

본고는 더 나아가 전쟁체험 세대 작가인 오정희가 전·후 상황을 주요 배경으로 창작한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겨울 뚝부기」를 통해 전쟁이라는 소재가 하나의 회상매개로서 서사 전개에 나타나는 방식에 주목해보고자 했다. 역사적인 사건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 단편적인 기억이 아닌 연속적 기억으로 남아 삶에 작용한다. 따라서 본고는 오정희의 전쟁 체험은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에 남아 작품 속에서 회상매개로서 치환되는 그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논지에서 출발했다. 기억이 인식되고 의식되는 과정에서 기억의 대상은 더 이상 실재하지 않으며, 특정 매개를 통해 환기된다고 볼 수 있다. 사라진 기억의 대상을 떠올리기 위해 '회상'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회상은 다양한 '매개'를 통해 추상적 기억을 형체화하고 현상에서 본질로 구체 된다. 본고가 대상 텍스트로 삼은 오정희 소설에서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라기보다는 과거지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억'이나 '회상'이 아닌 '회상매개'라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겨울 뚝부기」가 전쟁 직후 개개인이 겪어야 했던 폐허의 서사를 어떠한 회상매개를 통해 소설서사로서 전개하는지 그 궤적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한국현대문학사에 있어 한국전쟁이란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것이 작가의 기억으로 환원되어 작품 세계관 형성에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인 거리」(1979), 「유년의 뜰」(1980), 「겨울 뚝부기」(1980)를 중심으로 오정희의 '전쟁체험'이 어떠한 '회상매개'로 작품에 나타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억'의 흐름과 '회상매개'로서의 작용에 따라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겨울뚝부기」의 순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오정희 소설 속의 인물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기억을 잃거나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적 성장과 더불어 그 기억

을 매개체를 통해 되살리고자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첫 번째로는 「유년의 뜰」을 분석하면서 전쟁의 혼돈으로 빚어진 가장의 부재가 회상매개로서 재현되는 과정의 혼란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전쟁의 고통이 어떻게 개인의 기억으로서 재건되고, 회상매개화가 가능해지는지 「중국인 거리」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겨울 뚝부기」를 통해 무의식 속에서 부표처럼 부유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회상매개로서 어떻게 치환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회상매개의 대립: 「유년의 뜰」

‘경험’이 어떤 형태로 간직되었다가 나중에 재생이나 재구성되는 현상을 ‘기억’이라고 정의한다면, 과거의 기억은 확고부동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⁶⁾ 「유년의 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회상매개는 바로 아버지의 결혼 즉 ‘가장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유년의 뜰」의 결말은 이 공백의 환경에서 서술된다. 신뢰할 수 없는 기억을 통해 ‘조립’해왔던 아버지의 ‘환영’이 결국 환영이 아닌 ‘아버지의 귀환’으로 나타.

「유년의 뜰」 속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노릇을 하는 인물은 크게 셋으로 나타난다. 이는 밥집에서 일을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밤과 여의치 않는 화장이 늘어만 가는 ‘어머니’와 칼을 들고 번뜩

6) ‘기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층위로 나뉜다. ‘기억이 과거의 일을 다룬다 해도 과거를 다룰 수 있는 인식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과거를 회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억행위는 복잡한 인식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구조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인식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기저로 두고 아버지의 부재를 상황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기억’으로 보았다.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22면

이는 눈으로 닭을 바라보는 '봉지 할머니', 밤마다 언니를 때리는 '오빠'로 나눌 수 있다. 그러한 가족들을 '노랑눈이'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들에게 '늙은 갈보'라고 불려도 태연히 대꾸할 수 밖에 없는 어머니와,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동생들에게 터뜨리는 오빠는 아버지이고 싶어도 아버지일 수 없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보이는 일련의 폭력성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 폭력으로서 등장인물의 내면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가 가족 윤리의 부재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노랑눈이 가족에게서 아버지를 잠시 앗아간 전쟁이라는 사건은 하나의 거대한 역사이기 이전에 연대의 수난이자 가족의 수난, 개인의 수난이기도 하다. 전쟁서사 속에서 각자의 인물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 상처와 수난을 이겨내고자 노력한다. 그 중 먹을 것에 집착하며 자꾸만 가족의 곡식과 돈에 손을 대는 '노랑눈이'는 다섯 살 이전의 기억만 남아 있는 무의식적 기억의 진술자다. 즉 '학습된 기억'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유년의 뜰』의 '노랑눈이'는 아버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⁷⁾한다. 5살 이후 3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한 '노랑눈이'가 '아버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랑눈이'에게 아버지는 구체적 형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눈 덮인 기억⁸⁾과도 같다. 눈(시간) 위에 또박또박 찍힌 발자국(경험) 같은 기억은, 다시 펄펄 내리는 눈(시간)에 의해 오롯이 지워진다. (본문 59쪽) 이처럼 '나'에게 전쟁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는 막연히 좋기만 한 '눈'이기도 하지만, 펄펄 내리는 눈 뒤에 몰려오는 '혹독한 추

7) 『유년의 뜰』의 서술자의 관심은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자신의 기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기억의 사실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8) 때늦은 함박눈이 퍼붓는 날이었다. 나는 눈 위에 또박또박 찍힌 발자국이 펄펄 내리는 눈에 소롯이 지워지는 것을 아쉽게 돌아보며 짐 실은 달구지를 따라 걸었다.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59면.

위'(본문 60쪽)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세 해 전인가 할머니가 처음 우리집에 오던 날의 광경은 지금도 한 장의 그림처럼 내 머릿속에 또렷이 박혀 있었다.

그때를 전후한 일은 뭔가 몹시 어수선했다는 것밖에는 기억이 흐릿했다.

아버지는 뜰의 한구석을 파고 있었다. 곁에는 사기와 유리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릇들을 깨지지 않게 땅속 깊이 묻고 우리는 어디론가 떠난다고 했다.⁹⁾

‘노랑눈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때의 광경은 한 장의 그림처럼 또렷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때를 전후한 일은 기억이 흐릿하다고 진술한다. 즉 허구일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노랑눈이’가 매개를 통해 떠올리는 기억들이, 가족, 나아가 사회로 대변되는 주변인들의 언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재생되며 조작된 기억일 가능성도 부정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가부장제 질서의 혼란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유년의 뜰』에서 ‘아버지’는 “우리 모두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싶은 ‘노랑눈이’ 가족의 의지에 의해 임의로 사라진 회상매개이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 상황은 “존재 의미의 기점”¹⁰⁾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가부장제 질서가 붕괴를 일으키는 전시상태는 가장을 제외한 구성원에게 가족공동체 형성에 있어 금기되었던 행위들을 시도해 볼 당위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가장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된 권한은 권한 그 자체로

9)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 (앞의 책), 37면.

10) 이계원 외, 『분단 현실과 '여성적 성장'의 의미』, 『독일어문학』 27, 2004, 121면.

적용된다. ‘노랑눈이’의 ‘어머니’는 “깨어진 거울에 얼굴을 비추고” 분념새를 풍기며 외박을 일삼는다. 목수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부네’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가장의 부재가 가부장제 질서의 그릇됨과 혼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년의 뜰』 속 가장 부재의 상황은 더욱 강력한 기억과 억압의 결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유년의 뜰』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은 ‘노랑눈이’가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부네’의 아버지이자 안집주인인 ‘외눈박이 목수’다. 오빠의 실패와 대조적으로 목수는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집을 짓는 목수는 집을 떠나 피난민의 삶을 사는 ‘노랑눈이’ 가족에게 있어서 절대 권력자의 위치를 담당한다. 노랑눈이의 ‘어머니’와 대비되는 ‘부네’의 무분별한 출타를 제지하고, ‘나’를 아버지의 역할로서 사회화하는 것도 『유년의 뜰』 전반에 나타나는 목수의 행동이다. 목수네 집으로 이사를 온 노랑눈이는 안뜰을 지날 때마다, “얼굴에 주인집 방문을 훑거리고 그러면 영락없이 방문에 붙인 조그만 유리 조각에 딱딱 눈을 대고 이쪽을 내다보는 안집여자화 눈이 마주쳐 똥이라도 피하듯 공연히 진저리를 치”곤 한다. 이러한 안집여자의 시선, 목수의 모습, 쇠불알통 같은 자물쇠는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부유하는 노랑눈이네를 ‘초조’하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네를 잊었다. 골방의 문이 닫히는 순간, 자물쇠가 덜컥 걸리는 순간부터 부네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중략) 이사 오던 첫날 이미 방에 갇힌 것이며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을 본 듯도 했고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울의 다리 위로 머리채를 잡혀 목을 늘어뜨리고 오던 부네와 그의 아비 모습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기도 했다.¹¹⁾

11)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 (앞의 책), 22면.

노랑눈이는 ‘자물쇠’를 통해 부네 떠올리며 부네를 실제로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다고 한다. 또 부네에 대한 스스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자주 진술한다. 마찬가지로 죽은 듯 조용한 미장원과 술집·여인숙 ‘골목’을 기웃거리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렇듯 노랑눈이를 기억하게 하는 회상매개는 다양하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노랑눈이의 기억은 아버지 혹은 부네가 있었음을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 부네의 존재를 입증하고 환기시키는 것은 노랑눈이의 눈이 아니라, 부네의 방문에 채워져 있는 회상매개인 ‘쇠불알통’ 같은 자물쇠이며 여인숙이 있는 거리이다. 예컨대 마을사람 단 한명도 골방 문이 열리는 장면을 목격한 이는 없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공식적 기억으로서 그곳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보며 부네가 거기서 실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즉 이 자물쇠를 공공연한, 공식적 회상매개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년의 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식적 기억은 기억의 모티브, 도구에 지배당하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개인에게 있어 ‘자물쇠’ 혹은 ‘거리’란 당대 시대 상황을 수용한 직접적 모티브로 볼 수 있다. 독자적 기억보다 기억의 사회화를 피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자꾸만 ‘망각’되기를 강요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한 어떤 것을 회상하고자 할 때 동기와 현상에 따라 망각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돌아나고 그러한 의식이 떠올리고자 했던 것을 억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기억의 행위가 거부되고 기억의 내용이 억압”¹²⁾ 되는 회상매개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노랑눈이’는 자신의 회상매개를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이러한 ‘불안’은 자신이 알고 있

12)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211면.

던 것들이 “내 상상이 꾸며낸 더 먼 꿈속의 일” 즉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한다. 불명확한 기억에 대한 의심은, 당시 시 대상에 비추어 가족에게는 절대 권력이자 가장 중요한 존재인 아버지가 스스로의 권력과 폭력을 효과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담론을 생성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래서 작품 속에 등장했고 기억으로 남은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부정의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아임 낫 라이어.

아임 어니스트 보이.

오빠는 미국인과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새로 익힌 몇 개의 문장을 열심히, 되도록 부드럽게 혀를 굴려 외었다.¹³⁾

기억에 대한 불안이 전이 되는 것은 ‘가장 만들기’에 동참한 오빠 역시 마찬가지다. 노랑눈이의 오빠는 아버지의 부재 앞에서 짐짓 어른인 척 하지만, 끊임없이 영어 단어 “아임 낫 어니스트 보이”를 외우는(기억하는) 행동을 통해 불안감의 표출한다.

따라서 『유년의 뜰』 속 등장인물들의 ‘회상’은 특정한 공간이나 실재하는 소리, 대상을 매개로서 기억에 결부시켜 그 의미를 되찾는다. “의식 속에 간직해 두려는 사물들에 대해 정신적 이미지, 즉 회상매개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의식적 장소와 결부시키는 절차를 통해 이뤄”¹⁴⁾지는 것이다.

13) 오정희, 『유년의 뜰』, 『유년의 뜰』(앞의 책), 55면.

14)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0. 29면.

3. 회상매개의 이중양상: 「중국인 거리」

휴전 이후의 풍경을 이야기 하는 작품인 「중국인 거리」는 전쟁터에서 귀향한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중국인 거리’로 이주하는 데서 소설이 전개된다. 그러나 소설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미약한 수준이다. 당시의 아버지란 부양의 의무를 담당하는 가족의 책임자이자 절대 권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는 전후의 현실만큼이나 가족의 안위에 직결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중국인 거리」에 드러난 전쟁 경험은 시대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인 국면에서 다루어진다. 이는 오정희 소설에서 전쟁이 단순한 배경으로 소모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정희의 초기 소설속에서 가족의 해체로 투영된 특수한 사회적 상황, 즉 전쟁은 가족의 균열이 역사의 층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완전히 망각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모든 인지는 기억의 흔적 내에서 항상 퇴색되고 억압당한, 또는 덧씌워진 기억을 얻게 되며, 이 기억은 원칙적으로 다시 발견될”¹⁵⁾ 수 있도록 한다.

길의 양편은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드문드문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해가 썩인 이빨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제일 큰 극장이었다.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희게 회칠이 된 한쪽 변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욕이가 소근거렸다.¹⁶⁾

15) 니트함머는 전통과 잔재의 대비가 ‘기능기억’과 ‘저장기억’의 대비로 바꾸어 말할 수 있고, 그의 역사 기술적 강령을 여기서 제안한 두 가지 기억 층 사이의 상호 작용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역, 『기억의 공간』, (앞의 책), 191면.

『중국어인 거리』에서 드러나는 전쟁의 양상은 아버지의 부재를 초래하여 여성 인물로 하여금 스스로의 몸을 탐구하게 하는 과정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재차-기억을 통한 자아 성장의 근본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전쟁을 단순한 배경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전쟁 그 자체를 하나의 회상매개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소설에서 전쟁이 명확한 실체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전쟁의 경험은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기억이다. 오정희의 소설 속에서는 “가건물인 상점들을 빼고는 거의 빈터였다”, “포격에 무너진 건물의 형해가 썩인 이빨처럼 서 있을 뿐 이었다”처럼 장면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오정희는 곧바로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과 ‘곡괭이’를 회상매개로서 보여준다.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 상징적 공간으로 만드는 정교한 작업을 거친다.

『중국어인 거리』의 대표적 공간인 ‘중국어인 거리’는 전쟁 직후의 풍경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일본식 가옥이 늘어선 이 길에는 총 폭탄이 터지며 무너졌던, 지배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흔적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양공주와 흑인의 혼혈아도 중국어인 거리의 한 장면을 구성한다. 이 공간에는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삶과 죽음의 기억이 정교하게 교차하고 있다. ‘중국어인 거리’로 보이는 전쟁시기의 아비규환의 이미지는 “노란색 냄새”의 기억으로 상기된다.

민들레꽃이 필 무렵이 되면 나는 늘 어지러움과 구역질로, 뒷돌에 앉아 부끄러워 거품이 이는 침을 빨고 동생은 마당에 기어 다니며 흙을 집어 먹었다. 할머니는 긴 봄 내내 해인초를 끓였다.¹⁷⁾

16)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역, 『기억의 공간』, (앞의 책), 68-69면.

17) 오정희, 『중국어인 거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76면.

나는 노오란 햇빛이 끓는 방의 창문을 통해, 중국인 거리의 이층 집에 사는 중국인 남자의 얼굴을 본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슬픔”, “비에라고나 말해야 할 아픔”의 감정을 느끼지만,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은 실패한다. 언어로 설명되기 이전에 이미 “나무덧문이 무겁게 당겨지고 남자의 모습이 사라”져 잔재의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노란색 냄새’의 장면도 언어로 나타나지 못한 채 신비한 분위기로만 남게 된다. 즉 해인초 끓이는 냄새, 부걱부걱 거품이 이는 침 냄새, 민들레 꽃 냄새는 하나의 공감각적 회상매개로써 그 존재가치를 분명히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오정희는 전쟁 체험을 내용이 부재한 분위기로서 회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나’에게 전쟁이란 혼란스런 분위기로 복원되며,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년의 뜰』의 노랑눈이에게 아버지는 “머릿기름 냄새”를 통해 환기된다. 노랑눈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분명한 형체가 없다. 다시 머리의 기름 냄새와 손의 힘, 땀으로 젖은 등허리 이미지의 도움을 받아 감각적 회상매개로 복원된다.

진짜의 나는 안타까이 더듬어 보는 먼 기억의 갈피 째에서 단편적인 감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키가 몹시 컸다. 아니 그것은 덩치 큰 오빠를 향해 하던, 아버지를 쑥 빼었다는 할머니의 말에서 비롯된 연상인지도 몰랐다.¹⁸⁾

‘진짜의 나’는 “안타까이 더듬어 보는 먼 기억의 갈피째에서 단편적인 감각”으로 남아 있듯이, 부네나 아버지, 전쟁에 대한 기억은 단지 개인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각적 기억 이외의 타자의 기억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

18) 오정희, 『중국인 거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앞의 책), 47면.

듯, 노랑눈이는 아버지의 키가 크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키가 몹시 컸다”는 자신의 기억이 할머니의 말에서 비롯된 기억, 뒤늦게 만들어진 회상매개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노란색 냄새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 가난과 피폐 등의 기억과 명백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노란색 냄새의 이미지를 획일화된 기억으로 같음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피폐나 가난과 같은 언어는 그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억들을 묻어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로 변화의 과정을 거친 회상매개는 항상 불안정한 모습을 띤다. 따라서 언어로 구성된 회상매개는 부정확성을 띤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나는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키가 몹시 컸다”는 자신의 기억이 할머니가 알려준 정보, 즉 타자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회상매개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정희 소설에서 타자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회상매개는 다른 기억보다 더욱 더 신뢰성이 결여된 양상을 보이며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

4. 회상매개로서의 기억과 무의식: 「겨울 땀부기」

「겨울 땀부기」의 어머니는 ‘시끄러운 꿈자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무의식에 의한 심적 고통으로 주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우리는 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일단 기억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는다고 말한다. 무의식은 어둠의 장막에 가려져 우리의 의식 표면에 떠오른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전쟁의 흔적이 현재까지 다양한 회상매개로 나타나는 가장 큰 바탕은 바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잠이나 들면 세상사 좀 잊을까 해도, 원 꿈자리까지 시끄럽
구먼.¹⁹⁾

표면적으로 나는 어머니와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관계로 보인다. 하지만 오빠는 어머니에게 ‘삼재’의 이미지로 변모하여 꿈에서 까지 나타나며 이면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회상매개로서 작용하고 분위기의 불안함을 야기한다. 라깁은 언어활동이 없이는 의식도 있을 수 없고, 타자와 세상은 물론 자아의 인식도 불가능²⁰⁾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무의식은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앞의 두 작품을 지나 이제 ‘서른 살의 노처녀’가 되어 세상살이의 쓴맛 단맛 다 아는 양 제법 달관한 표정을 짓는 ‘나’는 무엇인가를 막막하게 생각한다.

네 어머니를 기다리지 마라, 네 어머니는 오지 않는다. 그것은 또 간단없이 우리 앞에 찾아올 슬픔과 죽음과 이별의 예시처럼 여겨지기도 했다.²¹⁾

‘나’는 어린 시절 오빠와 옷을 바꿔 입는 놀이를 즐겼다고 진술한다. “오빠는 군용 담요에 김정물을 들여 만든 내 세일러복을 입고 나는 오빠의 스웨터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펍 자랄 때까지도 서로 옷을 바꿔 입는 놀이를 했던 것”(본문 107쪽)은 모두 오빠가 생각해 낸 것이다. 두 사람이 다음으로 즐겨하는 놀이는 “어디만큼 왔니”로 “아주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행위를 놀이로 치환한 것과도 같다. 이는 지금보다 더 오랜 시절 ‘어떤 사건’이 두 사람의 무의식

19) 오정희, 『중국인 거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앞의 책), 101면.

20) 김영호,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1985. 284면.

21) 오정희, 『중국인 거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앞의 책), 107면.

을 기반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 ‘어떤 사건’이 전쟁이라는 사실은 본문에 등장하는 ‘군용 담요’로 만든 세일러 북, “간단없이 우리 앞에 찾아올 슬픔과 죽음과 이별의 예시”(본문 108쪽)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도 망각되지 않는 전쟁의 기억은, 무의식 속에서 기억의 왜곡이나 도구화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힘과 생명력을 갖는다.

정자나무까지 닿은 나는, “어디까지 와왔니”라고 물어도 대답을 잇은 듯 숨을 죽이고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오빠 곁에서 “또 간단없이 우리 앞에 찾아올 슬픔과 죽음과 이별의 예시”를 가늠한다. 이는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 외에, 나팔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린 다른 이의 기억이 그들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어디까지 와왔니”는 문장 형식의 회상매개로서 그들의 내·외면에 작용한다.

사실 그때의 일은 빛바랜 천연색 사진처럼 대단히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남아 있어, 대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러하듯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한낱 공상 이었는지 분명치 않았다. 그런 대로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함과 정다움으로 호젓이 젖어들곤 했다.²²⁾

“기억에 대한 심리적 거부”를 망각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망각은 회상매개로서 기억해내기를 거부하는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한 개체로서 그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고자 할 때 어떤 동기의 작용에 따라 망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겨나고 그 의도가 기억하고자 했던 것을 억압하는 것이다. “빛 바랜 천연색 사진처럼 대단히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의 유년의 기억에는 부표처럼 ‘한낱 공상’ 같았던 기억처럼 떠다닌다. ‘기억의 행

22) 오정희, 『중국인 거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앞의 책), 109면.

위는 거부되고 기억의 내용이 억압²³⁾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나’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빛바랜 ‘사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베이컨은 그림이 원본을 충실히 재현하고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림으로 된 작품은 일반적으로 질료성이 있으므로 시간이 흘러가면 파괴 된다²⁴⁾고 믿었다. 사진은 색이 변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진처럼 남은 기억은 없앨 수 없으며 복원의 가능성이 팽배하다. 유년의 기억을 어른인 ‘나’의 무의식 저편으로 떠나려 보내는 동안, ‘나’의 오빠는 어머니의 왼손 무명지에 끼고 있던 세 돈의 금반지를 뽑아 사업 밑천을 하겠다며 떠난다. 이렇듯 어느새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처자식을 벌여 먹여야 하는 ‘오빠’의 마지막 기별이란 오징어잡이 배를 타러 떠났다는 소식이다. ‘나’는 “차라리 나팔 소리 쓸쓸히 울려 퍼지던 저문 날, 오빠의 속삭임에 따라 어디론가 갈 수 없는 먼 곳으로 손 맞잡고 달아나던 때”가 차라리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나’가 느끼는 징후는 유년 시절 기억이 그대로 담긴 사진의 현상, 혹은 과거의 무의식과 현재의 재회가 아닌, “왕창 망해 버렸다는 호기와 허언으로 어느 날 불쑥 내 앞에 나타날 오빠와 맞닥뜨리는” 미래이다.

『유년의 뜰』의 노랑눈이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겨울 뚝부기』의 나는 자신이 ‘최초의 기억’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자주 떠올린다. 다만 『중국어인 거리』의 경우 조금 다르다. 『중국어인 거리』의 나는 유년의 기억을 회상하기보다 유년 시절의 기억을 조립하고 하나의 회상매개를 ‘만들어 나가는 중’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단편집 『

23) 김현진, 『기억의 허구성과 서사적 진실』,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211면.

24)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역, 『기억의 공간』, (앞의 책), 294면.

『유년의 뜰』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유년의 기억에 대한 집착은 ‘기억’의 회복, 재건을 통한 화자의 자아 찾기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유년의 기억을 불러오는 것은 “현재의 나를 설명하려는 강한 욕구”²⁵⁾이기 때문이다. 이 유년 서사의 공통점은 최초의 기억이 각자의 ‘나’에게 단편적인 이미지, 즉 무의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본고의 목적은 오정희의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두고 ‘전쟁 체험’이 어떠한 ‘회상매개’로서 그의 소설세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궤적을 논의하는 것에 있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치밀하게 고찰해 낸 오정희의 작품은 작품 속에서 드러난 여러 회상매개를 통하여 전쟁 상황에 놓여있거나 전쟁과 깊은 관련을 맺는 기억을 환기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전쟁 속의 여성 및 가족의 수난서사를 밝히는데 그 궤적을 같이 하였다.

첫 번째로 『유년의 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억작업’은 특정한 공간이나 어떠한 장소를 기억과 함께 결부시키며 이뤄졌으며, 전쟁 상황 속에서 사적 기억과 공식적 기억이 대립하는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특정한 기억을 잃어버린 이들은 개인적 성장과 더불어 그 기억을 매개체를 통해 되살리고자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두 번째로 『중국인 거리』에서는 시각적 기억 외에 타자의 개입으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기억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인물을 표면으로 내세웠다. 또한 타자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회상매개가 다른 기억

25)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책세상, 2000, 87면.

보다 더욱 신뢰성이 결여된 양상을 보이며 이중적 구조를 띄었다.

세 번째로 『겨울 뚝부기』를 통해 오정희는 ‘무의식’의 발현이 회상매개를 통한 기억작업을 거부하며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한 개체를 ‘망각’에 두었을 때 생겨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무엇인가를 기억하고자 할 때 어떤 동기의 작용에 따라 망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겨나고 그 의도가 기억하고자 했던 것을 억압하는 것도 ‘기억’을 매개로 한 ‘무의식’의 한 작용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오정희 소설에서 전쟁의 경험과 기억은 오정희의 초기 작품세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겨울 뚝부기』의 인물을 규정하는 시원(始原)에는 바로 전쟁의 경험과 그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유년의 뜰』과 『중국인 거리』의 인물에게 가장 문제적인 사실은 ‘가장의 부재’이다. 이 부재는 전쟁이 남긴 상처이자 아픔으로 작품 속 서술자의 무의식에 결박되기도 하였다.

오정희는 ‘유년기 전쟁체험 세대’ 작가 중 거의 유일한 여성작가로 꼽힌다. 따라서 오정희의 전쟁 체험은 전쟁의 이면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여성 수난의 회상매개이자 서사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을 타자화 할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나, 오정희는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여성의 수난 이야기를 다룬 남성 작가들과 달리 전쟁의 경험이 기억되고 재현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몸에 각인된 기억을, 기의와 기표를 통해 여러 가지 회상매개로 형상화함으로써,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전쟁, 재현이 불가능한 전쟁의 고통을 여실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오정희의 소설로 억압되어 왔던 개별적이며 역사적인 기억의 회상매개를 탐구함으로써, 전쟁의 현실을 새로이 조망하고 개별 기억의 인정과 극복으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찾아가 노력하였다. 본 글에서 논의하지 못한 오정희의 다른 작품 및 ‘전쟁체험 세대’의 억압된 문학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오정희,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1.

2. 단행본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책세상, 2000.

김영효,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2008.

김윤식, 『6·25와 소설의 내적형식』, 『우리 소설과의 만남』, 민음사, 1986.

김중희, 『대표소설 100선 연구』, 문학수첩, 2006.

박찬부, 『라캉, 재현과 그 불만』, 문학과지성사, 2006.

박혜경, 『오정희 문학연구』, 푸른사상, 2011.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우찬제, 『오정희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7.

황도경, 『문체, 소설의 몸』, 소명출판, 2002.

3. 학위논문

김은혜, 『오정희 성장소설의 트라우마 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노희준, 『오정희 소설연구: 시·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배성희, 『오정희 소설 연구: 신경증적 욕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배수정, 『오정희 소설의 시간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수완, 『오정희 소설의 젠더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최정애, 『오정희 소설의 죽음의식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4. 평론 및 기타

- 권영민, 「오정희와 소설적 열정」, 『소설의 시대를 위하여』, 이우, 1983.
- 권오룡, 「원체함과 변형의식」, 『존재의 변명』, 문학과지성사, 1989.
- 김경수, 「여성성장소설의 제의적 국면」, 『현대소설의 유형』, 숲, 1997.
- 김병익, 「성장소설의 문화적 의의」, 『세계의문학』, 1981.
- 성민엽, 「존재의 심연에의 응시」, 『바람의 뉘』, 문학과지성사, 1986.
- 성현자, 「오정희 「별사」에 나타난 시간구조」, 『개설행문논집』, 1986.
- 김치수, 「전율과 그리고 사랑」, 『유년의 뜰』, 해설, 문학과지성사, 1977.
- 김 현, 「살의 섬뜩한 아름다움」, 『불의 강』 해설, 문학과지성사, 1977.
- 박혜경, 이후의 오정희의 소설들, 『작가세계』, Vol.7, No.2, 1995.
- _____, 「불모의 삶을 감싸 안는 비의적 문체의 힘」, 『상처와 응시』, 문학과지성사, 1997.
- 이남호, 「휴화산의 내부」, 『문학의 위족』, 민음사, 1990 등.
- 이제원 외, 「분단 현실과 ‘여성적 성장’의 의미」, 『독일어문학』 27, 2004.
- 임금복, 「한국적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초상」, 『비평문학』, 1993.
- 장현숙, 오정희의 「비어 있는 들」 분석-작중인물과 ‘그’의 다의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62집, 2012.
- 지주현, 「오정희 소설의 트라우마와 치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5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 차미령, 「원초적 환상의 무대화」, 『한국학보』, 2005.
- 황도경, 「빛과 어둠의 문체」, 『문학사상』, 1991. 1.
- _____, 「『유년의 뜰』의 회상 형식 및 문체」, 『이화어문논집』, 1992. 3.
- _____, 「불을 안고 강 건너기」, 『문학과사회』, 1992. 5.
- 황영미, 「오정희 소설의 서술전략 연구-1980년 이후 발표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3권, 2007.

5. 번역서

- 마이클 페인, 장경렬 외 옮김, 『읽기 이론 / 이론 읽기』, 한신문화사, 1997.
-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0.
-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진수 옮김, 『『망각의 심리 기제에 대하여』,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 열린책들, 2005.

피에르 노라 외, 김인중 외 옮김, 『기억의 장소 ①, ②, ③ 프랑스들』, 나남, 2010.

<Abstract>

Research about Memory Material of Oh Jung Hee's novel

Lee, Ji-Hye · Kim, Jong-Hoi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discuss the trajectory of Oh Jeong-hee 'war experience' as a 'mediator of remembrance,' focusing on his early novels. Oh Jeong-hee is considered the only female writer among the 'War Experience Generation' writers. 『Garden of Infancy』, 『Chinese Street』. It is 『Winter Watercock』. which created the situation with major backgrounds, show that the war should not clearly show its weight in the novel. Historical events, as well as personal events, work in human life not with fragmentary memories but with continuous memories. Therefore, Oh Jung-hee's experience in the war clearly illustrates the process in which he remains in memory in a certain way and is replaced as a means of retrospection. Historical experience is an important element in Oh Jung-hee's literature, a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t has been reduced to the memory of the writer and has a clos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world view.

Therefore, Oh's experience in the war can be described as an epic as well as a retrospection of female suffering that shows the hidden side of the war. By exploring the recall parameters of individual and historical memories that have been suppressed by Oh Jeong-hee's

novels, one can look at the realities of war and find clues that lead to the recognition and overcoming of individual memories. The recollections that appear in the early novels of Oh Jung Hee are in a state of war or deeply related to war. They seem to have lost a particular mem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times and share with personal growth trying to revive memory through a piece of memory. In this paper, the texts to be studied are 「Garden of Infancy」 and the 「Chinese Street」. It is 「Winter Watercock」.

The first is the 「Garden of Infancy」 of the characters in the 「Garden of Infancy」 which was done in conjunction with a certain space or place with memories, and clearly showed the private memory and the formal memory process in a war situation. Thus, in light of the times, those who lost certain memories showed that they were trying to revive them through a medium as well as personal growth.

Second, the 「Chinese street」 has put on the surface a figure who is not only suspicious of visual memory but of memory made by the influence of the batter's intervention. In addition, the recall medium creat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batter was more unreliable than other memories, creating a double structure.

Third, through 「Winter Watercock」, Oh Jeong-hee said, The intention of forgetting is to refuse memory work through retrospection, and to place objects caused by certain factors in oblivion.

Let's look at the 'confusion' of the process of recreating the absence and loss of a family caused by the chaos of war through novels. next, we will examine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pain of war that can not be reproduced through "memory" of individuals through 「Chinese Street」 as "material". Third, we will look at the reminiscence meditation that emerges like a buoy in a subconscious way through 「

Winter Watercock」.

Key words: Oh Jung-Hee, Memory, War, Reminiscence, Recall motif

투 고 일 : 2018년 6월 7일 심 사 일 : 2018년 6월 7일-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